

# 불우이웃에 '정성'을 입힙니다

## 능인복지관 뜨개질 수요봉사회

회원 24명 조끼·목도리 등 뜨개질 생활보호대상 주민 80명에 보시

"실은 시계방향으로 돌려 아래를 끌어서 위에서 돌려 코를 만들고 맨 아래단은 고무코로, 소매아래까지는 겹뜨기로 62단을 올리세요." 17일 오후 2시 능인종합사회복지관 301호 교육실, 김성옥씨의 지도를 받으며 10여명의 여성불자들이 뜨개질에 몰두해 있다. 바늘과 바늘을 잇는 바쁜 손놀림속에 보라색, 하늘색, 회색 빛깔의 조끼들이 한코 한코 모여 형태를 갖추어 간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면 어김없이 모여 열심히 뜨개질을 하고 있

는 이곳은 능인종합사회복지관의 뜨개질 수요봉사회. 추운 겨울을 앞두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위해 지난 10월말 결성됐다. 때마침 여성들 사이에서 수십년간 뜨개질 붐이 일었고, 동참자도 많았지만 뜨개질을 만들릴 후원받기가 어려워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을 구입해 뜨개질 작업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24명이 동참해 저마다 집에서 복지관에서 뜨는대로 뜨개질을 하고 있다. "시장에 가면 기성복 옷도 많지만 사람의 손이 일일이 가는 뜨개

질로 만든 털옷을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애정과 관심이라는 생각에 뜨개질을 시작했어요." 정봉자 회원은 모임에 동참하게 된 연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뜨개질 수요봉사회 회원들은 조끼와 목도리, 스웨터, 모자 등을 만들어 오는 연말 개포 1동~4동 생활보호대상자와 정부의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무허가 집단촌 구름마을 저소득 주민 등 약 80가정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 겨울 뜨개질 봉사자를 마친 뒤에도 조를 관성해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과 결연을 맺어 방문봉사활동을 통해 한번 맺은 인연을 지속시킬 예정이다. 이 모임을 이끌고 있는 김성옥씨는 "겉으로는 쉬워 보이지만 주부들이 집안살림하면서 틈을 내 한코 한코 뜨개질을 만드는 일은 세심한 정성이야는 할 수 없는 작업"이라



뜨개질 수요봉사회 회원들이 서로 도와가며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 줄 털옷을 만들고 있다.

면서 "회원 모두가 마음을 모아 뜨고 봤는데, 이은자 기자 (ejlee@buddhopia.com) 뜻하고 예쁜 뜨개옷을 들고 조만간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갈 계획"이라

## 명사들의 건강비결 ①



권영일

(한국스카우트복지지회 회장)

"예수를 훌쩍 넘겨버린 사람이 더이상 무슨 바람이 있겠습니까. 그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함께 호흡하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삼보를 공경할 따름이죠. 부처님 법대로 사는게 바로 건강을 유지하는 힘인 것 같습니다." 매일 하왕십리 자택으로 물러드는 1백여 명의 대중들 앞에서 짜릿짜릿한 목소리로 40여 년째 역학 강의를 하며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는 한국스카우트복지지회 회장 권영일 회장(65)은 탐욕을 부리지 않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건강 비결이라고 말한다. 30년 전부터 매일 아침 5시30분이면 일어나 예불과 함께 108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권 회장이 실재없이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는 피곤한 일경에도 지치지 않고 매번 반갑게 사람들을 맞는데는 '진인사 대천

## 탐욕 부리지 않고 순리대로 살아 30년간 예불·108배... 향공수련도

명(盡人事 待天命) 하는 진지한 삶의 태도가 근본을 이룬다. △항상 너그러운 마음으로 미소짓고 화를 내지 않는 생활 △매일 한가지 이상 선행을 배풀어 공덕을 쌓는 생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삼보를 공경하는 생활을 화두삼아 실천하는 노력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권 회장의 비결임은 물론이다. 예불 후 20분에 걸쳐 하는 네뱃밀교의 기공행법 향공(香功)도 꾸준한 건강유지의 노하우다. 향공을 수련하다 보면 몸안의 모든 기혈이 풀려 질병이 소멸되고, 몸의 탁한 기운이 소멸돼 절로 즐거워진다는 것. 92년 김해인씨(현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고문)에 의해 발족된 한국스카우트복지지회 2, 3대 회장을 맡아보며 청소년포교는 물론 재가불자 경전공부를 위해 운동법회를 매일 들켜주 또는 셋째주 토요일 오후3시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열리고 있는 권 회장은 "육식을 내지 않으면 병도 없다"고 강조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opia.com)

## 감신

### 소년가장 돌기 불교합창제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해월스님)은 27일 오후 7시 광주 시민회관에서 제3회 소년소녀가장돌기 한마음선원 어린이 불교합창제를 갖는다.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열리는 이번 합창제에는 어린이불자들이와 아버지가 함께 출연해 음성공양을 올리며,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헌신 합창단도 찬조 출연한다.

### 디지털상담실 후원봉사단

청주 디지털열린상담실(상담실장 홍자운)은 20일 디지털열린상담실 후원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후원봉사단은 매주 토요일 상담실에서 정기법회를 갖는 한편 월 1회 복지시설 등을 찾아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 고3생 위한 프로그램

동등청소년수련관은 수능시험을 마친 고3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12월1일~31일까지 매주 수, 금요일 오후 4시 테크노댄스교실을 운영하며, 콜라텍도 열 예정이다. 또 이달 29일부터 3차례 걸쳐 자원봉사 이혼교육과 현장 학습을 실시하고, 12월7일부터 2회에 걸쳐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02)2646-6816



▷불교방송 스튜디오에서 청취자의 상담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초격스님.

"여러분 오늘 수능시험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뭐로 두교라도 우선 축하분하지요? 특히 최선을 다한 사람은 더욱 길게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길게 연장하지 마십시오. 시험은 끝났지만, 대학입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 더 잘 알테니까요."

불교방송 심야 간판 프로그램 '살며 생각하며'(오후11시~0시, PD강선문) 진행자 초격스님(평명선원 원장)은 지난 17일 대학입학 수험생들이 치러진 밤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을 위해 따뜻한 사연으로 방송을 시작했다. "방송진행도 포교의 연장에서

## "방송도 포교의 연장 삶의 고민 함께 풀지요"

### BBS '살며 생각하며' 진행 초격스님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불교를 내세우거나 치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진행자가 스님이라는 점에서 불교는 다 말할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10월18일 가을개편이후부터 진행을 맡은 스님은 청취자와 대화하는 쌍방진행인 이 프로그램을 참신함과 진솔함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사는 이야기, 고민거리 상담 등 작지만 개인에게는 소중한 사연들이 편지나 전화연결로 소개돼 함께 생각하게 한다. 30~40대 주부에서부터 노년층,

청소년 등 청취자의 폭도 그만큼 넓다. 서울 강남 도심에 개척포교당을 내고 청소년공부방까지 운영하는 스님은 특히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불교에 대한 인상을 진솔하게 터놓는 타 종교인들의 전화방문도 환영한다. "앞만 보며 사는 바쁜 현대인들이 밤 늦은 시간에 조용히 앉아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방송을 통해 하루하루 귀중한 인연을 맺어 나갈 생각입니다." 위영란 기자

## 불교방송 조직개편

### 본부장·아나운서부 신설

불교방송(사장 성낙승)은 15일자로 방송본부장 직제와 아나운서부를 신설하는 등 기구조직 개편과 함께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내년 개국 10주년과 2000년대를 대비한 이번 기구조직 개편으로 방송본부장에 홍사성 前불교신문 주필을 임명하고, 기획실의 포교제작 교양제작 보도 아나운서 기술 광고사연 관리부 등 7개 부서장을 발령하고 각 부서에 팀장을 임명했다.

## 진각종 첫 대중법회 연다

### 27일 진선여중고서 혜정대정사 밀교 강의

진각종이 창종이래 처음으로 종도들 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중법회를 연다. 진각종 신도회인 총금강회 서울 지부 금강회(회장 손성섭)는 통리원(원장 성초)의 후원을 받아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강남동진선여중·고 회담기념관에서 밀교 교리대법회를 개최한다. 서울 교구

신도 및 일반인 등 2천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법회에는 불교방송에서 밀교강의를 맡고 있는 혜정대정사(진각종 교법연구부장)가 '삼라만상이 모두 법신부처님의 몸이다'를 주제로 70분간 설법하고 청중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이 마련된다. 신도회가 주축이 되어 병행하는 이번 대중법회를 통해 진각종은 '열려있는 종단'으로서 포교활성화와 밀교의 대중화를 꾀한다. 진각종은 향후 대구 부산 등에서도 밀교교리 대법회를 개최할



▷혜정대정사

다는 계획. 한편 이날 법회가 열리기전 문화이벤트로 김현주씨의 국악공연과 금강총창단의 찬불가 공연 등이 열리며 법회현장에서는 <밀교란 무엇인가> (밀교강좌) <대일경주심품의> 등 밀교관련 경전도 구입할 수 있다. (02)913-0751

이경숙 기자

## 부불련 독경·퀴즈대회 신심겨뤄

### 어린이 16개팀 참가... '동명불원' 대상

부산불교어린이지도자연협회(회장 정영스님)는 14일 양정청소년회관에서 제14회 찬불가, 독경 및 교리퀴즈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부산지역 사찰 어린이법회 16개지부 4백여명의 어린이불자가 동참해 실력과 신심을 겨뤘다. 전체 대상은 동명불원 어린이회가 차지했으며, 찬불가부문은 선암사어린이회, 중창부문은 통도사부사산포교원어린이회, 독창부문은 보현선원 어린이회, 교리퀴즈 부문은 관음사어린이회가 차지했다. 천미희 기자



▷어린이 불자들은 그동안 쌓아온 신심을 겨루며 한마당을 펼쳤다.

# 불교의 계율을 깬 파계승인가 모든것을 다 얻은 득도승인가!



한책 지음 300쪽/전3권 값7,500원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구선스님 수행기

## 소설 觀

- 구선, 그는 누구인가?
- 그가 18세 때 밝혀낸 가야산 해인사 장경각 1000년의 비밀을 공개한다.
- 행자의 신분으로 10년간 전국을 만행하며 깨달음을 얻기위해 고승을 찾아다니며 일구어 내는 선문답
- 전생의 인과에 의해 이어지는 사창가 여인과 사랑과 이별
- 혹독한 자기 연인과 자기 혐오 속에서 몸부림치며 한 걸음 한 걸음 자기를 완성시켜 나가는 한 승려의 처절한 수행기
- 삶과 죽음의 경계를 자유자재로 드나들며 밝혀낸 우주 창조와 비밀과 윤회의 순환고리
- 최초로 공개되는 영혼의 생성과정과 2000년대에 대한 비전들
- 고행을 하는 한 승려의 시작과 완성의 과정이 이처럼 잘 묘사된 책은 없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핵심이 이 책에 담겨 있다.



봉성기획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73-14 3F 전화 354-62045 팩스 354-6292

# 서기 2000년, 시대의 흐름이 바뀐다.

무엇이 시대를 움직여 가는가? 「관, 존재 그 완성으로 가는 길」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영혼은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생명의 의식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관, 존재 그 완성으로 가는 길」 당신이 갖고 있는 마음에 대한 의문의 해답은 이책에 모두 제시되어 있다. 사상 초유의 마음 닦는 길을 제시해 놓은 책.

구선스님 지음 460쪽 / 값15,000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 觀